



한국 산업보건의

역사를 써 내려갈

대한산업보건협회

제3기 사내기자단 출범!

화사한 봄꽃 향기 가득한 4월, 대한산업보건협회 제3기 사내기자단이 힘찬 첫걸음을 내디뎠다. 앞으로 산업보건 최전선에서 78년 협회 역사를 밑거름으로 새로운 미래를 써 내려갈 사내기자단을 만나러 1박 2일 워크숍 현장을 다녀왔다.

글 이정림 사진 강권선

사내기자단의 기록이 곧 산업보건의 역사

4월 17일과 18일, 대한산업보건협회 대강당은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열기로 가득 찼다. 바로 사보·방송·SNS 콘텐츠를 통해 생생한 현장의 모습을 전하며 대내외 소통 창구로 임무를 수행할 제3기 사내기자단이 새롭게 출범한 것. 이날, 백헌기 대한산업보건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내 소통은 조직 발전의 핵심 동력”이며 “현장의 목소리는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는 가장 중요한 나침반”이라고 강조하면서 “생생한 현장 소식을 발 빠르게 전달해 직원 간 공감대를 넓히고, 대한산업보건협회의 긍정적인 이미지 구축에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명장은 이범식 경영총괄 이사가 수여했는데, 특히 눈길을 끈 사내기자는 부산지역본부 산업위생국 조은미 선임과장이었다. 여유로운 미소로 임명장을 받아 든 조은미 사내기자는 “타의로 시작했지만, 소임을 수행하다 보니 마음가짐이 달라졌다”며 “평소 읽던 계시판 글도 다시 한 번 보게 되고 글쓴이도 찾아보게 되더라”고 전했다.

**훈훈한 축하 열기 속,
우수기자들의 빛나는 노하우 공개!**

환영 열기가 채 식기도 전, 우수기자상 수여식이 열리며 현장에는 훈훈한 축하 분위기가 이어졌다. 우수기자상의 영예는 인천센터 안유진 선임과장과 대전세종지역본부 임선숙 팀장에게 돌아갔다. 안유진 선임과장에게 본인만의 사내기자 활동 비결을 묻자 “사내기자는 협회의 얼굴”이라며 “사내기자 명함을 적극 활용해 외부와 소통하고 다양한 보건관리자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라”고 강조했다. 임선숙 팀장은 “기관장과 동료들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히며 “주기적으로 산업보건 관련 기관 홈페이지를 확인하고, 언론 기사를 활용해 기사를 작성하는 방법”과 “분기별 계획을 세워 꾸준히 콘텐츠를 발행하는 것”을 핵심 비결로 소개했다. 두 우수기자의 생생한 경험과 진솔한 조언은 제3기 사내기자단에 실질적인 도움과 동기를 부여하며 앞으로의 활약을 더욱 기대하게 했다.



제3기 대한산업보건협회 사내기자단 임명식

일자 | 2025.04.17. 대한산업보건협회



**대한산업보건협회의
78년 발자취를 따라서**

기념 촬영으로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한 사내기자단이 가장 먼저 발걸음을 옮긴 곳은 대한산업보건협회의 78년 발자취를 담아낸 역사관이었다. 사내기자단은 전시 자료를 통해 1947년 해방 직후 ‘조선산업보건협회’라는 이름으로 첫발을 내디뎠던 창립 초기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고, 국내 최초로 직업병 전문 기관인 ‘직업병 클리닉 의원’ 개원을 통해 직업병 예방과 치료 분야를 선도하며, 명실상부 대한민국 산업보건의 기틀을 확립해 온 과정을 자세히 살펴봤다. 역사관 견학을 마친 기자단은 체계적인 여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장을 방문해 협회의 전문성과 사회적 책임 실천 노력을 직접 확인하며 뜻깊은 시간을 마무리했다.

**앞날이 더 기대되는
사내기자단의 새로운 도약!**

워크숍 하이라이트는 ‘기사 작성 및 보도자료 작성’ 교육이었다. 이날 강연을 이끌어간 김미영 매일노동뉴스 기자는 “시 시대에는 글쓰기 능력은 더욱 중요해졌다”며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라는 6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명확히 담아내는 것이 기사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취재는 기사의 식재료와 같아서 좋은 식재료가 있어야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듯, 충실한 취재가 좋은 기사의 바탕이 된다”고 비유하면서 “전문가 집단인 협회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더욱 깊이 있는 소통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새로운 얼굴과 함께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제3기 사내기자단을 응원하며, 더욱 풍성한 소식으로 따뜻한 소통이 꽃피는 대한산업보건협회의 활기찬 미래를 기대해 본다. ☺